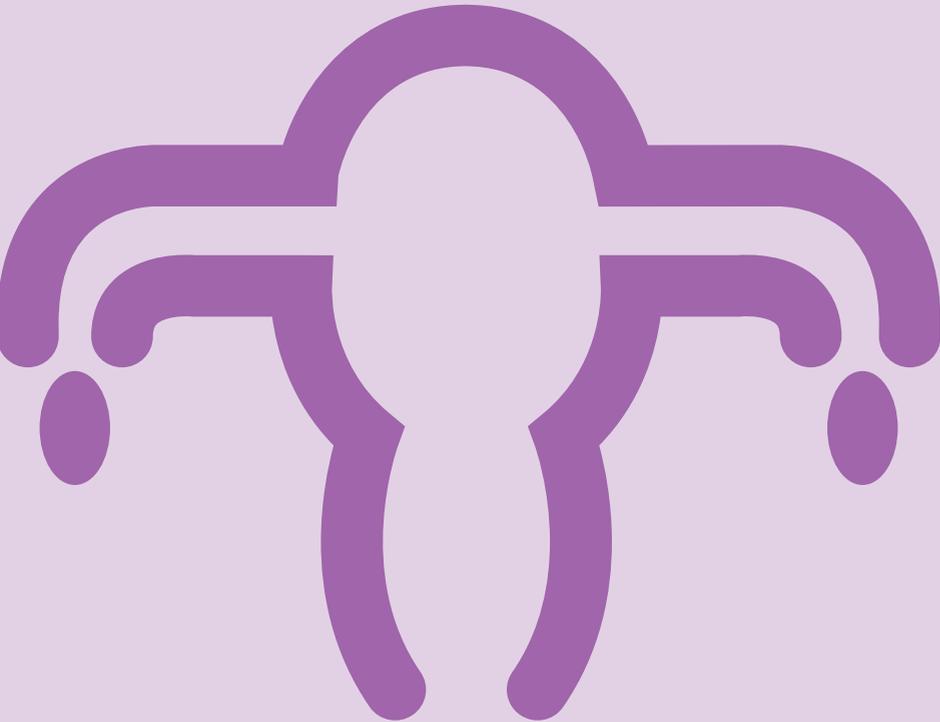


# 자궁경부암

암에 대한 바른 이해



## 국민 암예방 수칙



**담배** 를 피우지 말고,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



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,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**식사** 하기



**음식** 을 짜지 않게 먹고, 탄 음식을 먹지 않기



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잔의 소량 **음주** 도 피하기



주 5회 이상, 하루 30분 이상, 땀이 날 정도로 걸거나 **운동** 하기



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**체중** 유지하기



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**예방접종** 받기



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**성생활** 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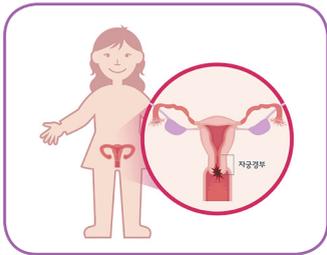


**발암성 물질** 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



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**검진** 을 빠짐없이 받기

## 자궁경부암이란?



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는 암(악성 종양)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이 자궁경부에 생기면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.

자궁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는 기능을 합니다. 자궁 입구에 생기는 자궁경부암은 암이 되기 이전 단계인 전암 단계를 상당 기간 동안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중간 단계인 자궁경부 상피내이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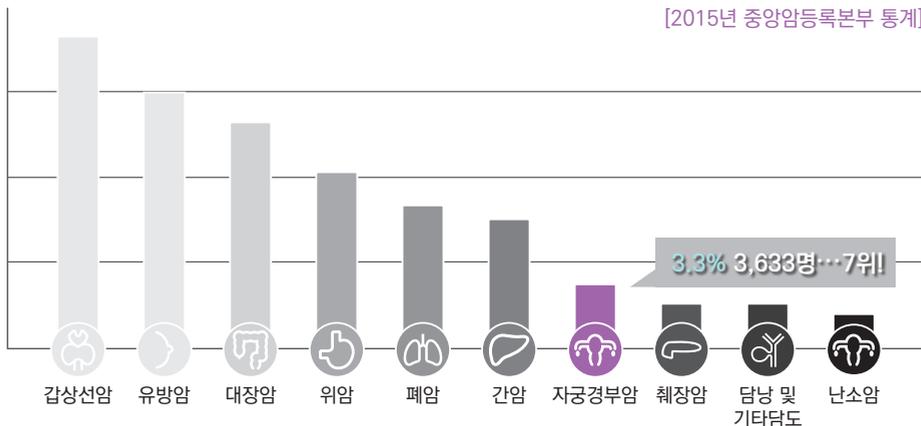
증을 거쳐, 상피 내에만 암세포가 있는 자궁경부상피내암(자궁경부암 0기)으로 진행하고, 이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합니다. 정상 상피세포에서 침윤암이 되는 과정은 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.



(자궁경부암 암화 과정)

자궁경부암은 주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전체 자궁경부암 중 약 80-90%를 차지하며, 이 외에 선암(10-20%),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 두 종류의 특징을 모두 가진 혼합 암종(2-5%)이 있습니다. 자궁경부암은 2015년 중앙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여성암 발생의 7위를 차지합니다.

[2015년 중앙암등록본부 통계]



##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은?

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흡연이 주요 위험요인입니다.

### 〈사람유두종바이러스〉

-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은 자궁경부암 발생의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.

\*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uman Papilloma Virus, HPV)란?



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하여 전파되며,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매우 흔한 바이러스입니다.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암의 발병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나뉩니다. 저위험군 바이러스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감염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. 그러나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감염상태를 유지하여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발전하며 이 중 일부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

합니다. 특히 HPV 16과 HPV 18은 자궁경부암의 70%에서 발견됩니다.

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지만,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반드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.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70~80%는 1~2년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기 때문입니다.

#### 생활 요인

- 흡연을 하는 사람

#### 기타요인

- 장기간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사람
- 출산 경험이 많은 사람

##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려면?

알려진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

### ● 자궁경부암 검진받기

- 자궁경부암은 암이 되기 전 전암성 병변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검진을 받아 자궁의 건강을 지키세요!

### 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하기

-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권장 접종연령은 9-26세이며, 성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성경험이 있더라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-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(NIP)에 포함되었습니다.

### ● 안전한 성생활하기

-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첫 성경험 나이를 늦추고, 성상대자수를 최소화하는 등의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
### ● 금연하기

-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, 흡연 여성은 담배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.

### ● 기타

- 경구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하면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경구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.

- 7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.



## 자궁경부암의 검진권고안

자궁경부암은 전암성 병변(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, 상피내암) 단계에서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.

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생리기간은 되도록 피하고, 생리 시작일로부터 10~20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데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출혈에 관계없이 검사를 합니다. 주의사항으로는 최소한 검사 48시간 전부터 성관계, 탐폰 사용, 질 세척, 질 내 약물 및 윤활제, 질 내 피임약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# 자궁경부암의 검진 권고안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검진 대상 | 20세 이상 여성 (단, 성경험이 없다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.)                      |
| 검진 주기 | 3년   |
| 검진 방법 | 자궁경부세포검사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<br>(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함께 받으셔도 됩니다.) |



##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

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,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%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.

### <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나요?>

- 만 20세 이상의 여성
- 자궁경부세포검사
- 2년마다

### <대상자는 누구인가요?>
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% 이하인 사람

※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위 50 %에 해당하더라도 본인부담금 10 %를 지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.(2016년 현재)

### <언제 받을 수 있나요?>

- 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해당연도 내에 검진기관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
### <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>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 드린 검진 안내문에 안내된 기관을 방문하세요.
-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다면  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<http://sis.nhis.or.kr>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<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?>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국가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에 예약 후 방문하세요.
-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으로 문의하세요.

## 자궁경부암의 증상

자궁경부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질출혈
  - 폐경기 이후의 출혈
  -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출혈  
(성관계 후, 심한 운동 후, 대변을 볼 때 많이 나타날 수 있음)
  - 질 세척 후 출혈
- 질 분비물의 증가
- 질 분비물의 악취
- 골반통, 요통
- 체중감소

### 자궁경부암의 단계별 증상 및 증후

| 초기<br>(Early stage)  | 중기<br>(Middle stage)  | 진행된 단계<br>(Advanced stage)  |
|--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상이 없는경우가 흔함</li> <li>- 불규칙한 출혈, 지속되는 질출혈, 붉은 질 분비물</li> <li>- 성교 후 출혈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뇨 후 출혈</li> <li>- 배뇨곤란/ 혈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체중감소</li> <li>- 악취를 동반하는 혈성 분비물</li> <li>- 심한 골반통, 요통</li> </ul>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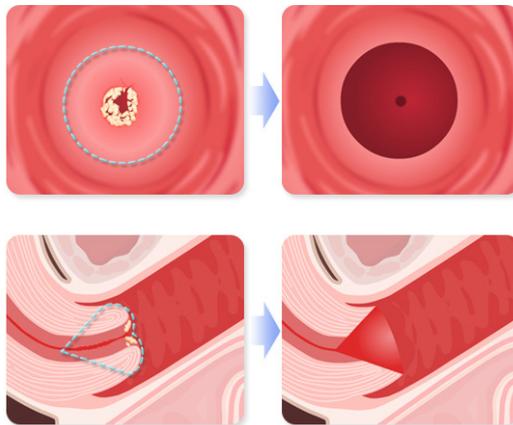
## 자궁경부암의 진단 및 치료

### 자궁경부암의 진단

- 자궁경부암의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. 실제로 암이 맞는지 확인하는 조직검사와 전산화단층촬영(CT)이나 자기공명영상(MRI)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을 위한 병기 설정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### 자궁경부암의 치료

-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면 암의 진행 정도(병기)와 함께 암의 크기, 연령, 전신상태, 향후 출산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정합니다.
- 전암성 병변이면 자궁경부를 원추 모양으로 잘라내는 원추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여 치료 후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침윤성 자궁경부암이면 대부분 광범위 자궁적출술이나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치료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. 병변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수술하지 않고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합니다.



[원추절제술]



## 자궁경부암이 궁금합니다.

자궁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.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?

자궁절제수술의 방법에 따라 자궁을 절제할 때 자궁경부나 난소가 남겨질 수 있습니다. 자궁경부가 함께 절제되었는지 확인해서 남아있다면 자궁절제수술을 받으셨더라도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미혼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

미혼 여성이라도 성관계를 시작했다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 하나는 성관계로 전파될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므로,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질 출혈이 있습니다. 암인가요?

질 출혈은 여성의 질을 통해 나오는 출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. 이는 실제로 질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궁 입구 또는 자궁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. 질 출혈은 자궁근종이나 질, 외음부 질환, 자궁경부암 등 자궁경부와 내막의 양성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. 이러한 출혈은 성 관계나 심한 운동 후, 대변을 볼 때, 질 세척 후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질 출혈 자체만을 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.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므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규칙적으로 산부인과적 진찰과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## 국가암검진 프로그램(자궁경부암) 안내



연령  
만 20세 이상 여성



주기  
2년마다



검진방법  
자궁경부세포검사



검진시기  
생리 시작일로부터  
10~20일 사이





제 작 : 보건복지부·국립암센터  
문의처 : 국가암정보센터 (1577-8899/ [www.cancer.go.kr](http://www.cancer.go.kr))